

베트남 MOU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임실군, 42명 입국으로 고령화·농번기 인력 확보... 올해 267명 유치 계획

임실군이 지난 25일 베트남 MOU 계절근로자 42명이 입국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환대를 위해 심 민 군수,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환영식을 개최했다.

군은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해 2024년 5월에 베트남 무역협정과 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작년 하반기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 인력을 선발하여 입국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농업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수급 인력 다변화를 위해 올해 2월에 라오스, 캄보디아와도 MOU 체결을 한 바 있다.

이번에 입국한 42명 중 35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 배치되어 7개월간 일일의 단기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7명은 농가에 배치하여 숙식하며 일손을 돕게 된다.

이후 베트남 MOU 근로자들은 26일 오수관촌농협 회의실에서 범죄예방 및 소방안전교육, 농가 현장실습을 마친 뒤 신검검사 등 국내 체류에 필요



임실군이 지난 25일 베트남 MOU 계절근로자 42명이 입국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환대를 위해 심 민 군수,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농작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267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4월 중으로 170명 가량이 입국하며, 각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작업에 투입된다.

또한, 계절근로자들의 거주 안정화를 위해 68억원을 투입하여 90명 수용가

능한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여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멀리 베트남에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임실군에 와준 계절근로자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계절근로자 여러분들이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성실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4월부터 군민 장제비용 부담 경감 위해 최대 100만원

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군민의 장제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장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장례식장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이며, 관내 장례식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60세 이상 사망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60세 미만의 사망자는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단, 중위소득 120%

초과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되는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순창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 내 장례식장과 관련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유족의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군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즉시 카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청 건강장수과에 신청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노고를 기리고, 마지막 가를 예우하는 뜻깊은 사업이다"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063-650-1541)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로 논콩 안정 재배

임실군이 지난 25일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과 연계해 삼계면 어은리 일대에서 배수불량 논콩 생산단지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곡 도·시군 사업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타시군 사업추진 사례 공유,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설명, 데이터 수집 요령, 시공 과정 현장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논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인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시범 사업을 1개소 5.5ha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은 배수가 불량한 논에서 땅속에 유공관 대신 왕겨를 압축해 채우는 방식으로 소수차 매설기를 트랙터에 부착 후 주행과 동시에 땅속 50cm 깊이에 지름 50mm 크기로 구멍을 뚫어 진동을 통한 왕겨 자동 투입 및 압축 충진하여 왕겨 사이로 물이 빠지게 하는 기술이다.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은 배수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공이 간편하고 쉬우며 기존 '무굴착 땅속 배수(유공관) 기술' 대비 시공비용을 34% 줄일 수 있고 왕겨가 공극률이 높아 물 빠짐이 좋으며, 공 수확량도 무배수에 비해 10t당 34%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족관계 해체가구 지원... 생활보장위원회 열어

남원시는 26일, 가족관계가 해체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3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신규 심의 2건과 재심의 14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6명이 참석해 진행되었으며,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시민들의 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남원시는 최근 5년간 2,306가구 3,12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



체, 조건 부과 유예, 재산 특례, 근로 무능력 세대, 보장 비용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 가구를 도우려고 고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노인복지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3회 연속 A등급 획득

남원시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6대 사업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으며, 특히 △2018년 △2021년 △2024년도 연속 3회 A등급 획득으로 지



역사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노인복지관은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올해로 13년째 남원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복

지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종사자가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진석 관장(신부)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1순위는 항상 직원들이 친절해서였다"며 최우수 결과의 공을 직원들에게 넘겼다.

권혜정 통합돌봄 과장은 "이번 최우수기관(A) 등급 선정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복지관을 비롯한 시 직원 모두가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남원시가 지역 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개의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평생교육기관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관을 선정, 선정된 기관들은

청소년기관 2곳, 복지관 3곳, 작은도서관 4곳, 기타 평생교육기관 1곳으로, 이들 기관은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와 소의 계층, 직업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

는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체력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은 물론,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숲 체험과 드론 교실도 마련되었다. 또한, 지리산과 남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 특화 교육도 제공되고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봄철 축제 대비 식중독 예방 강화

순창군은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순창을 경건 일원에서 열리는 육천골 벚꽃 축제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순창참두름여행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많은 상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축제 기간에는 지역 내 음식점뿐 아니라 축제 기간 중 운영될 푸드트럭까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축제 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 종합대응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투입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는 물론, 축제 현장의 먹거리 부스까지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주민 없는 간판 철거사업 4월 중 추진

남원시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주민 없는 간판 철거사업'을 오는 4월 중에 추진한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 없는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폐업하거나 이전한 업소의 간판들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치된 간판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6개의 간판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건물주는 간판 철거 동의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54)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성봉 건축과장은 업주들에게 깨끗한 도시 만들기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